

#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통일과 리더십

김 갑 동\*

## 목 차

- I. 머리말
- II. 후삼국의 성립
- III. 정책을 통해 본 왕건의 리더십
- IV. 전투를 통해 본 왕건의 리더십
- V. 맺음말

## I. 머리말

전성기를 구가하던 신라는 하대의 시작과 함께 석양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진골 귀족들의 왕위쟁탈전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혜공왕대 대공의 난이 일어나자 이는 권력쟁탈전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양상이 혜공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그가 곧 선덕왕(宣德王)이었다. 선덕왕대에도 왕위계승전이 벌어져 김경신이 김주원을 내쫓고 원성왕(元聖王)으로 즉위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현창은 공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하였다.

왕위계승전은 흥덕왕 말년에 극에 달하였다. 상대등 김균정과 시중 김명 일파가 싸움을 벌여 이 과정에서 김명이 승리하여 희강왕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청해진인으로 도망가 장보고의 힘을 빌어 민애왕(본명은 金明)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가 곧 신무왕(神武王)이었다.

이후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신라는 안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귀족들은 사치와 방탕으로 몰들어 있었다. 금으로 걸을 도금한 금입택(金入宅)을 가지고 있었고 철마다 가서 놀 수 있는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사절유택(四節遊宅)이라 했다.<sup>1)</sup> 현강왕대 처용이 술 먹고 놀다 밤늦게 들어와 보니 역신(疫神)이 그의 아내를 간통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반면 민중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남의 집에서 품을 팔아 먹었어도 식량이 모자라 아이를 버려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힘들게 일해 보았자 추수 때가 되면 귀족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형편이었다. 민중들은 이제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정든 집을 떠나 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여기저기서 항거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진성여왕 3년(889)부터 시작된 농민봉기였다. 진성여왕의 실정으로 국가의 창고가 텅 비면서 전국에 조세독촉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도처에서 농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방에서 견훤이, 북방에서는 궁예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기존의 신라와 더불어 소위 “후삼국 시대”가 연출되었던 것이다. 또 서로 군웅(群雄)이 할거하였으니 이 시기를 “전국(戰國)시대”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

1) 사절유택(四節遊宅)을 한자의 뜻 그대로 풀이하면 ‘사계철마다 가서 놀 수 있는 집’을 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별장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후삼국을 최종적으로 통일한 사람은 왕건이었다. 그는 궁예 밑에서 군인으로 활약을 하다 민중들의 신망을 얻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분열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후백제의 견훤을 제치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그의 리더십은 어떤 정책을 통해 발휘되었을까. 이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II. 후삼국의 성립

### 1. 후백제의 성립

우선 후백제의 견훤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 · 지금의 문경군 가은면)에서 태어났다. 그가 광주(光州) 북촌의 어느 마을에서 지령이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그가 무진주(廣州)를 점령한 이후 만들어낸 설화가 아닌가 한다. 그는 장성하면서 체격이 크고 웅대한 뜻이 있어 신라의 군대에 입대하였다. 서남해 방면에 파견되어 복무하던 그는 진성여왕대의 혼란을 틈타 점차 세력을 넓혀 무진주까지 점령하였다 892년의 일이었다.<sup>2)</sup>

그런데 당시 그가 칭한 관직을 보면 전무공등주군사(全武公等州軍事)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전주·무주·공주 등의 군사권을 장악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견훤이 이들 지역을 거론했을 리는 없다. 적어도 전주나 공주의 도독(都督)이나 세력가들과 접촉이 있

---

2)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이것이 889년(진성여왕 6)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아마 무언가 착오를 일으킨 모양으로 892년 설이 맞지 않나 한다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묘하게도 다 옛 백제지역이다. 따라서 견훤은 일찍부터 옛 백제지역 유민들의 동향을 알고 이들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 같다. 즉 이 지역에 팽배한 반신라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이미 헌덕왕 14년(822) 김헌창이 응천주도독(熊川州都督)으로 있을 때 이 지역민들의 반(反)신라감정을 이용하여 난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때 반란의 중심세력도 응천주를 비롯하여 무진주·완산주였다. 옛 백제 지역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김갑동, 1999·311-317)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예전의 상황이 되풀이 된 것이었다.

견훤이 큰 저항없이 완산주(전주)에 무혈입성한 것도 이러한 옛 백제 지역의 민심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의자왕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물론 백제가 금마산에서 일어났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역사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완산주에 도움을 정하고 그 인근 지역인 익산지역의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금마산은 현재의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미륵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백제가 발흥하게 된 것은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며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데에 있었다. 무력으로 백제가 정복되기는 했지만 백제인의 후예들은 언젠가는 다시 백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국호도 백제의 후예국이란 뜻에서 후백제라 하였던 것이다.

## 2. 태봉의 성립

궁예는 원래 신라의 왕실 출신이었다. 47대 헌안왕(憲安王) 또는 48대 경문왕(景文王)의 아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문왕의 서자로

추정된다. 현안왕은 아들이 없었고 경문왕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그는 나면서부터 이빨이 있었고 태어나는 날 지붕위에 상서롭지 못한 광채가 있었다 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계집종이 구출하여 도망가 살았다. 나이 10여세가 되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궁예는 길러준 어머니의 곁을 떠나 세달사로 들어갔다. 세달사는 고려시대에 홍교사로 불렸는데 영월지역에 있었다.<sup>4)</sup>

세달사에서 승려생활을 하던 궁예는 진성여왕대의 혼란기에 뜻을 품고 환속하였다. 죽주의 기훤에게 의탁했던 그는 복원(원주)의 양길 휘하에 들어갔다 그 후 정복을 떠나 원주, 강릉을 거쳐 철원까지 장악하였다. 그리고 양길을 격파한 후 896년 철원을 도읍으로 하여 태봉(泰封)을 건국하였다(조인성, 1990). 그러자 왕건 부자가 귀순해 왔고 송악에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 이후 왕건의 활약에 의해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 등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기도·강원도·황해도 일대는 물론 충청도 북부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신라에게 멸망한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노라 공언하고 나섰다. 즉 그는 “옛날에 신라가 당(唐)에 청병(請兵)하여 고구려를 멸하였기 때문에 평양(平壤) 옛 서울이 황폐(荒廢)하여 풀만 무성하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 하였다.

궁예가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대부분 고구려의 영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유민들의 동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말을 공언하여 주민들

3) 경문왕의 왕비는 원래 영화부인(寧花夫人)이었으나 동왕 3년 부인의 동생을 맞아들여 차비(次妃)로 삼았다(「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경문왕조) 그 앞의 현안왕조에는 그가 왜 두 남매를 취하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이 나와 있다.

4) 세달사가 개성 부근에 있는 홍교사라는 설이 있으나 지리적으로 볼 때 세달사는 영월에 있던 홍교사의 전신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의 지지를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천복(天復) 원년은 서기로 901년으로 신라 효공왕 5년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궁예가 왕을 칭했다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보면 그가 이 해에 국호도 고려(高麗)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궁예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호를 고려로 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 즉 국호를 고구려의 후예국이라는 의미에서 고려로 하면서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그가 신라조정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현덕왕 17년(825) 김범문(金梵文)이 고달산(高達山)의 산적 수신(壽神) 등 1백여 인과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김범문은 김현창의 아들로 아버지가 난을 일으켰다 실패한 것에 대한 원한에서 다시 거병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봉기하여 도읍하고자 했던 곳이 평양(平壤)이었다. 여기서의 평양은 물론 현재의 평양은 아닌 것 같다. 아직 평양 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경기도 양주군(楊州郡)을 말하는 것이다. 이 지역도 당시 평양이라 불리웠기 때문이다. 양주가 평양이라 불리운 것은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지역을 수도와 비슷한 규모의 남진기지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범문이 봉기를 할 때도 고구려를 부흥시킨다는 명분 하에 유민들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궁예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노라 한 것은 김범문의 봉기와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요컨대 신라말 후삼국으로 분열된 것은 가까이는 진성여왕의 실정과 그로 인한 생활의 궁핍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의 삼국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신라가 당을 끌어들이며 무력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백

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은 비록 그 국가는 멸망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를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견훤과 궁예가 공개적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백제와 고려의 탄생 요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 Ⅲ. 정책을 통해 본 왕건의 리더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역사상에서 후삼국 시대만큼 난세는 없었다. 진성여왕 3년(889)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혼란이 태조 19년(936)에 와서야 비로소 수습되었기 때문이다. 무려 47년간이나 전국토가 전란과 혼란에 휩싸였다. 영웅은 난세에 출현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많은 영웅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자웅을 겨룬 것은 왕건과 견훤이었다. 사람들의 위에 서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는 지도자로서 리더십은 무엇이였을까 한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양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 중 한 사람은 성공했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했다. 어떤 차이점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을까.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은 무력을 너무 신봉하였다. 힘이 있으면 다 굴복할 것이라 믿었다. 해군은 열세이었을 지 모르지만 육상전 투력은 궁예나 왕건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그의 군대는 훈련을 받은 공식적인 정예병이었기 때문이다. 궁예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건도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가능하면 무력대결을 피하려 했다. 견훤은 이에 자만하였다. 그 결과 신라의 수도를 침범하여 왕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였다. 이 사건으로 견훤은 신라인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없었다. 왕을 죽인 역적으로 치부되었다. 927

년 대구의 공산전투에서 왕건군을 크게 무찌른 그는 더욱 자만심에 빠져들었다. 그것이 대세를 흐트러진 결과가 되었다. 결국 3년 후 그는 안동 전투에서 왕건에게 참패를 당해야 했다.

후계자를 잘못 선택하여 자중지란을 초래케 하기도 하였다. 장자인 신검을 제쳐두고 젊은 후비의 아들인 금강을 후계자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검이 반기를 들자 견훤은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고려로 도망할 수 밖에 없었다. 내부적인 분열은 후백제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하였다. 936년 왕건군에 의하여 격파되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왕건은 어떻게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가? 어떤 자질을 가졌기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 1. 기다림의 철학을 배우라

왕건은 877년 송악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 후 2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896년 아버지와 같이 궁예에게 귀순한 그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수행하였다. 898년 궁예 휘하에서 정기대감에 임명된 그는 정복전쟁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엿볼 수 있다. 즉 많은 신하들이 공을 자칭하고 궁예에게 아부하고 있을 때 왕건은 자원하여 변방인 나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부장이었던 김언이 불만을 토로하였다. 자기들의 공로는 많은데 상이 없다고 불평하였다. 그러자 왕건은 이들을 조용히 타일렀다. “부디 헤이하지 말라! 오직 힘을 다하여 복무하고 두 마음을 먹지 말아야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임금의 포박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아침하는 자들이 득세하여 호상 음해를 일삼고 있다. 이리 하여 중앙에 있는 자들은 자기 신변을 보전하지 못하는 형편이니 차라리 정벌에 종사하고 왕실을 위하여 진력함으로써 자기 몸을 보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였다.

두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왕이 방자하고 잔학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아침하는 무리가 뜻을 얻어 유언비어와 모함이 난무하고 있다. 이때에 왕궁 안에 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밖에서 정벌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이렇듯 그는 함부로 나서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었다. 그는 진정 기다림의 미학과 철학을 알았기에 후일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 2. 지휘권을 공명정대하게 썬다

그는 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썬다. 그는 913년 궁에 휘하에서 현재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시중(侍中)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국사를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은 가까이 하였지만 악하고 간교한 사람은 멀리하였다. 누가 착한 사람을 헐뜯는다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옹호하였다. 913년에 왕건은 시중(侍中)이 되었다. 이에 왕건의 지위가 백관의 우두머리로 되었다. 그러나 왕건은 정부에 출입하고 국정을 논의할 때 언제나 오직 감정을 억누르고 조심하며 군중의 인심을 얻기에 힘쓰고 착한 이를 좋아하며 악한 자를 미워하였다. 또 누가 참소를 입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를

다 구출해 주었다.

그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청주인이었던 아지태(阿志泰)는 궁예에게 아첨하여 관직을 차지한 자였다. 그런데도 같은 고향 사람인 입전·신방·관서 등을 모함하였다. 사람들은 아지태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최고 권력자인 궁예의 비위를 거스를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왕건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진위를 가렸다. 알고 보니 실은 아지태가 관직을 빙자하여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지태를 감옥에 집어넣자 많은 사람들이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여겼다. 그 대가로 왕건은 시중직에서 해임되어 수군을 거느리고 다시 나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해가 될 줄을 알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않고 옳은 일을 위해 공명정대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 3. 부하들의 마음을 장악하라

고려 건국 후 그는 민생문제에 특히 신경을 썼다. 태조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백성들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도 백성들이 편안해야 유지되는 것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영을 내려 세금을 탕감하여 주었다. 십일제(什一制)를 적용하여 전(田) 1부(負)에 조(租) 3승(升)씩만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궁핍했던 백성들을 위해 그는 조세제도를 바로잡았다. 천하에 통용되는 법을 적용하라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는 10분의 1세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漢)나라 한전제(限田制)를 본받아 10분의 1세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태조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그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전 임금이 백성 보기를 지푸라기와 같이 하고 오직 사육만을 추구하였다. 이에 참서(讖書)를 믿어 갑자기 송악(松嶽)을 버리고 부양(斧壤)에 돌아가 궁궐을 세우니 백성은 노역(勞役)에 피곤하고 삼시(三時; 봄·여름·가을)는 농업에 때를 놓쳤다. 더욱이 기근이 연달아 이르고 질병(疾病)이 뒤이어 일어나므로 집을 버리고 흩어져 길 위에서 굶어 죽는 자가 서로 잇닿았으며 한 필(匹)의 세포(細布)가 쌀 5승(升) 값이었다. 이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몸을 팔고 자식을 팔아 남의 노비가 되게 하였으니 짐이 매우 민망하게 생각하는 터이다. 그 소재지의 관원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조사하여서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노비가 된 자 1천여 명을 얻으며 내고(內庫)의 포백(布帛)으로써 보상하여 돌려보냈다.

여기서 부양은 철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904년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식량이 없어 굶주리게 되자 자신의 몸을 팔아 남의 노비가 된 자가 많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태조는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들 1천여 명을 파악하여 양인으로 해주었다.

한시적으로 조세를 면제해주고 죄인들을 특별히 사면하는 정책도 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3년 동안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주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 말대로 시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민심을 얻으려는 태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 그의 즉위와 더불어 중죄인을 제외하고 죄수들을 사면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는 새로운 왕의 즉위 시 연례행사처럼 했던 것이었다. 사면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표시인 동시에 농업노동력의

확보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었다. 죄인들이 풀려나 농사를 지으면 그들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일이었음은 틀림없다.

태조는 또 흑창(黑倉)을 설치하여 빈민들을 구제하였다. 이는 국가에서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궁핍한 백성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추수가 끝난 뒤에 갚도록 하는 시책이었다. 아마 흉년이 심할 때는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정책은 태조가 민심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태조는 민생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세제도를 확정하여 너무 많이 걷지 않도록 하였으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는 정책도 실시했다. 한시적으로 조세를 면제해주었는가 하면 죄수들을 사면하기도 하였다.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들을 구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후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 4. 지휘 협조 체제를 잘 유지하라

그는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각 지역의 호족들을 포섭하였다. 그러기에 태조는 즉위하면서 전국의 호족들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였다. 당시 신라 정부는 통제력을 잃은 상태라 지방세력들이 스스로 군사를 모아 자기 고을을 지키는 상황이었다. 호족을 자신의 편으로 얼마나 끌어들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 자신도 송악의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즉위하자마자 이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내 선물을 후하게 하고 말을 낮추어[重幣卑辭] 회유하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호족들이 귀순해왔다. 골암성(鶻巖

城)의 성주 윤선이 귀순해 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충언도 이 무렵에 귀순해온 자였다. 귀순해 온 호족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 주었다. 그 아들과 중앙 세력가의 딸을 결혼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태조 3년에는 강주장군 윤웅(閩雄)이 그 아들 일강(一康)을 보내 귀순해왔다. 그러자 태조는 일강에게 아찬(阿粲)이란 품계를 주고 경(卿) 행훈(行訓)의 누이동생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그리고 낭중 춘양(郎中 春襄)을 강주에 보내 귀순한 자들을 위로하였다.

이처럼 호족들이 귀순의 표시로 그 일족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다. 호족들은 충성의 표시로 아들을 보냈고 중앙에서는 그들이 반역하지 않는 한 잘 대우해 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반역을 할 경우 중앙에 올라와 있는 호족의 일족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종의 인질이었던 셈이다. 고려시대 기인제도(其人制度)의 기원도 실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지의 호족들이 계속 귀순해 왔다. 태조 5년 하지현장군 원봉(下枝縣 將軍 元奉)과 명주장군 순식(溟州將軍 順式)·진보성주 홍술(眞寶城主 洪術), 태조 6년에는 명지성장군 성달(命旨城將軍 城達)과 벽진군장군 양문(碧珍郡將軍 良文)이 귀순해 왔던 것이다. 태조의 호족들에 대한 포섭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한편 지방의 대호족들이 귀순해올 경우에는 ‘왕(王)’성을 하사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명주의 장군이었던 김순식(金順式)의 경우가 그 경우였다 그는 명주의 대호족으로 왕건이 왕위에 즉위하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 허월(許越)의 설득으로 태조 5년 맡아들 수원(守元)을 보내 귀순해왔다. 그러자 태조는 수원에게 ‘왕(王)’성을 하사해주고 토지와 집도 마련해 주었다. 태조 11년 김순식이 직접 중앙에 올라오자 태조는 그와 그의 소장

관경(小將 官景)에게도 ‘왕(王)’성을 하사해 주었다. 호족과 의제가족(擬制家族)적인 관계를 맺어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함이었다.

〈표 1〉 태조의 후비 일람표

	후비명칭	성씨	출신지	현지명	후비의아버지
1	신혜왕후	류씨(柳氏)	정주	풍덕	천궁(天弓)
2	장화왕후	오씨(吳氏)	나주	나주	다린군(多隣君)
3	신명순성왕후	유씨(劉氏)	충주	충주	궁달(兢達))
4	신정왕태후	황보씨(皇甫氏)	황주	황주	제공(悌恭)
5	신성왕태후	김씨(金氏)	경주	경주	억렴(億廉)
6	정덕왕후	류씨(柳氏)	정주	풍덕	덕영(德英)
7	현목대부인	평씨(平氏)	경주	경주	준(俊)
8	정목부인	왕씨(王氏)	명주	강릉	경(景)
9	동양원부인	유씨(庾氏)	평주	평산	검필(黔弼)
10	숙목 부인		진주	진천	명필(名必)
11	천안부원부인	임씨(林氏)	경주	경주	언(彦)
12	홍복원부인	홍씨(洪氏)	홍주	홍성	규(規)
13	대량원부인	이씨(李氏)	협주	합천	원(元)
14	대명주원부인	왕씨(王氏)	명주	강릉	예(乂)
15	광주원부인	왕씨(王氏)	광주	경기 광주	규(規)
16	소광주원부인	왕씨(王氏)	광주	경기 광주	규(規)
17	동산원부인	박씨(朴氏)	승주	승주	영규(英規)
18	예화부인	왕씨(王氏)	춘주	춘천	유(柔)
19	대서원부인	김씨(金氏)	동주	서흥	행파(行波)
20	소서원부인	김씨(金氏)	동주	서흥	행파(行波)
21	서전원부인				
22	신주원부인	강씨(康氏)	신주	신천	기주(起珠)
23	월화원부인				영장(英章)
24	소황주원부인				순행(順行)
25	성무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지윤(智胤)
26	의성부원부인	홍씨(洪氏)	의성부	의성	유(儒)
27	월경원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수문(守文)
28	몽량원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수경(守卿)
29	해량원부인		해평	해평	선필(宣必)

각 지역의 호족의 딸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명주의 김순식에게는 딸이 없었는지 그의 부하장수였던 관경(官景)의 딸과 혼인하였다. 기록에는 그 이름이 왕경(王景)으로 나오나 이는 태조 11년 그가 태조로부터 ‘왕(王)’성을 하사받았기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명주의 또 다른 호족이었던 왕예(王乂: 원래 이름은 金乂)의 딸과도 혼인을 하였다. 이밖에도 황해도 정주의 유천궁, 충주의 유궁달, 평안도 평산의 박지윤, 경기도 광주의 왕규 등의 딸과 혼인을 하였던 것이다. 때로는 호족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호족들과 태조와의 관계가 긴밀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총 29명의 후비를 갖게 되었고 거기에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얻게 되었다.

요컨대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호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여러 호족들이 귀순해 왔다. 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었다. 인질로 올라온 그들의 일족에게는 결혼을 시키기도 하였고 전택(田宅)을 주기도 하였다. 또 ‘왕(王)’성을 하사하여 의제가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호족의 딸과 결혼하여 가족이 되기도 했다. 물론 호족들이 보내온 일족은 유사시 인질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각 지방을 장악한 호족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 5.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을 채택하라

그는 또한 가능하면 무력을 쓰지 않으려 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상대국을 존중해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태조 왕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신라에 대해 자신은 그 신하임을 자처했다. 그

리고 신라를 끝까지 존중하고 우대하였다.

일찍이 고려와 후백제는 서로 맹약을 맺은 바 있다. 후백제와의 맹약이란 태조 8년(925)의 조물군(曹物郡)<sup>5)</sup> 전투 시 맺은 맹약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양국은 서로 인질을 보내 화친을 맹세하였다. 그러다가 이듬해 고려에 인질로 와 있던 진호(眞虎)가 죽자 견훤은 고려의 인질 왕신(王信)을 죽이고 웅진으로 진군하였던 것이다. 이 견훤은 태조 10년 신라를 침공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왕건은 이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신라 왕실을 도와 기울어져 가는 조정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은 진 문공이나 제 환공이 주(周) 나라 왕실을 받들었던 것처럼 신라 왕실을 존숭했으나 견훤은 왕망이나 동탁이 한(漢) 왕실을 도모한 것처럼 신라를 침략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사실이였다 그는 신라를 가능하면 손상치 않게 하려 했다 그리하여 신라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군사를 파견하여 도와주었다. 태조 3년 견훤이 신라의 대량(大良:합천)·구사(仇史:초계)의 고을을 침략하자 신라가 아찬 김율(阿餐:金律)을 보내어 구원요청을 해온 적이 있었다. 이에 태조는 군사를 보내 이를 구원하였다.

태조 8년 10월에는 고을부(高鬱府: 경상북도 영천)의 장군(將軍) 능문(能文)이 군사를 거느리고 내투(來投)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그 성이 신라의 왕도(王都)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노고를 위로하여 돌려보내고 다만 휘하의 시랑 배근(侍郎 盍近)과 대감 명재(大監 明才)·상술(相術)·궁식(弓式) 등만을 머물러 두었다 그의 귀순을 받아들이면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것이었으나 먼 앞날을 위하여 돌려보낸 것이였다. 신라를 도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 했던

5) 조물군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경북 선산의 금오산성 설, 안동 부근 설, 김천 조마면 설, 안동과 상주 사이 설, 의성의 금성(金城) 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금오산성 설이 유력하다 하겠다



것이다.

태조 10년 정월에는 왕건이 후백제의 용주(龍州)를 치자 신라가 군사를 내어 도와주기도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견훤이 신라를 침략하자 구원요청을 받은 왕건이 출동하였다. 견훤은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침공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돌아오다 공산(公山:대구 팔공산)에서 왕건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왕건은 대패하여 목숨을 겨우 건졌다. 견훤의 입장에서는 909년 덕진포(德津浦) 전투에서의 참패를 설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오히려 왕건이 신라인들의 민심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목숨을 걸고 신라를 도우려 했다는 평가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3년 뒤 고창군(古昌郡·안동)전투에서 김선평(金宣平)·권행(權幸)·장길(張吉) 등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는 신라의 귀순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925년 고을부(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귀순해 오자 신라의 서울인 경주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내기까지 하였다. 930년 고창군(안동) 전투에서 견훤을 대파한 후 마음만 먹었으면 곧 바로 신라를 무력으로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라를 평화적으로 접수할 수 있었다.

## 6. 행복한 적은 죽이지 않는다

그는 포용력도 가지고 있었다. 신라에서 귀순해 오는 지식인이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태조 10년(927년) 공산 전투에서 자신을 사지에까지 몰아넣었던 견훤도 받아들였다. 935년 견훤이 귀순 의사를 밝혀오자 사신을 파견해 맞아왔고 그를 우대해 주었다. 그리하여 후백제 신검을 토벌하는데 견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고려의 북쪽 지역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다.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표방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낼 때 스스로를 ‘고려(高麗)’라 하고 임금을 ‘고려국왕(高麗國王)’이라 했다. 예컨대 「속일본기(續日本紀)」를 보면 발해 제3대 문왕 대흠무(大欽茂)가 일본에 보내 온 외교문서에 스스로를 ‘고려국왕 대흠무(高麗國王 大欽茂)’라 적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했던 고려도 발해를 친척의 나라로 생각했다. 발해를 위협했던 거란과도 초기에는 우호정책을 표방하였다(김소영, 2001). 태조 5년(922) 거란이 사신을 고려에 보내 낙타와 말, 양탄자 등을 보내왔다. 그러자 고려에서도 여기에 화답하였다 3년 뒤인 태조 8년(925)에도 사신을 거란에 보내 답빙하였던 것이다. 이때 거란과 발해는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었다 924년 발해가 거란의 요주(遼州)를 공격하여 자사(刺史)를 살해하자 거란은 발해의 요동을 보복공격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거란과 우호관계를 지속한 것은 후백제와의 경쟁속에서 쓸데없이 거란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서성호, 1999 : 27). 발해에 대한 친척의 감정은 있었으나 발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태조 8년(925)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에 대한 태도는 바뀌었다.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거란에 대해 적대시하기 시작하였다. 925년 9월 발해의 장군 신덕(申德) 등 500여 명이 고려에 내투(來投)한 것을 시작으로 발해 유민들이 계속 고려에 넘어 들어왔다. 태조 17년(934)에는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유민 수만호를 거느리고 고려로 귀순해 왔다. 그러자 태조는 그에게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하사해 주고 백주(白州)를 주어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우호적인 태도로 감싸주었던 것이다(박옥걸, 1996).

반면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였다. 태조

25년(942)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서 낙타 50필을 선사하였다. 그러자 왕건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의심을 내어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심히 무도(無道)하다. 멀리 화친을 맺어 이웃을 삼을 것이 되지 못한다” 하였다. 그리고 교빙을 끊고 그 사신 30인을 해도(海島)에 유배하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 아래에 매어놓아 다 굶어죽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거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거란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고려가 강력하게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북방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또한 국제적인 역학관계의 영향이기도 했다. 이미 중국의 후진(後晉)에 거란에 대한 협공을 제의한 바 있었던 태조는 거란을 다시 한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전략이었다. 거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하여 당시 거란과 적대관계에 있던 후진의 호의를 사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와 후진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거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서성호, 1999). 뛰어난 국제적인 전략의 하나였던 것이다.

요컨대 태조는 후백제의 견훤을 포용하였다. 이전의 적을 아군으로 만들었다.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발해의 유민들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태조의 뛰어난 리더십의 한 단면이었다.

## 7. 크게, 멀리 생각하라

무엇보다 그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신라 때 잃어버렸던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는 우선 서북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의 경영에 착수하였다(하현강, 1967 및 장상훈, 1996). 그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평양에 대도호부(大都護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인근의 황주(黃州)·봉주(鳳州)·해주(海州)·백주(白州)·염주(鹽州) 등지의 인호(人戶)

를 옮겨와 살게 하였다. 그리고 사촌동생인 왕식렴(王式廉)과 광평시랑(廣平侍郎) 열평(列平)을 보내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승격시켰다. 태조 5년(922)의 기록에 벌써 서경이라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에 개경과 비슷한 관부와 관리를 설치했다. 또 태조 13년(930)에는 서경에 학교를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렇듯 그가 평양을 중시한 것은 고구려의 계승이라는 측면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고구려 유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평양을 북진정책의 기지로 하고자 함이었다. 아울러 북방이 튼튼해야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후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에 대한 준비작업이었다.

이렇게 하여 서북방은 튼튼해졌지만 동북방이 문제였다. 동북방에는 아직도 여진의 무리들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들이 진압되지 않는 한 북방의 변경이 조용할 수 없었다. 이에 태조는 우선 그들을 회유하였다. 그러자 918년 8월 함경도 안변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던 윤선(尹瑄)이란 자가 귀순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방면에서는 여진족이 자주 침략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에 태조는 동왕 3년(920) 유금필을 파견하였다. 그는 개정군(開定軍) 3,000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골암(鵲岩)에 이르러 동쪽 산에 큰 성을 쌓고 거처하며 북번(北蕃)의 추장(酋長) 300여 인을 불러 모아 주식(酒食)을 성대하게 배설하여 향응하였다. 그 취한 기회를 타서 위엄으로 협박하여 추장(酋長)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드디어 제부(諸部)에 사인(使人)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미 너희 추장(酋長)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와서 항복하라”라고 하니 이에 제부(諸部)가 서로 거느리고 와 부용(附庸)하는 자가 1,500인이었다. 또 포로된 자 3,000여 인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여 북방(北方)이 편안하게 되니 태조가 특히 포장(褒獎)을 가하였다.

이처럼 유금필은 기지를 발휘하여 이들 여진인들을 복속시켰다. 그가 그렇게 쉽게 여진인들을 굴복시킨 것은 그의 뛰어난 지략덕분이기도 했지만 여진 사정에 밝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궁예에게 귀순한 평양성주 검용(平壤城主 黔用)의 일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광수, 1977 : 145). 이듬해인 태조 4년(921)에는 흑수말갈의 추장 고자라(高子羅) 등 170여 명이 귀순해왔다. 한편 그 해에 일부 달고적(達姑狄)들이 안변을 침략하자 고려는 장군 견권(堅權)을 파견하여 이들을 분쇄하였다.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썼던 것이다.

이렇게 고려에 귀속된 여진족들은 유금필 휘하에 들어가 각종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기동력을 갖춘 기병(騎兵)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조 17년(934) 후백제와의 운주(運州)전투에서 태조가 화친을 도모하자 그는 이에 반대하고 후백제군을 공격하여 패퇴시켰다. 그런데 이때 그가 거느린 부대를 기록에서는 「경기수천(勁騎 數千)」이라 표현하고 있다. 날랜 기병이란 뜻이다. 또 태조 19년(936) 후백제 신검과의 일리천(一利川) 전투에도 유금필은 흑수말갈(黑水靺鞨)과 달고(達姑)·철록(鐵勒) 등으로 구성된 경기(勁騎) 9천 5백을 거느리고 있었다. 태조의 뛰어난 유연한 북방정책으로 북방세력이 오히려 후삼국 통일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태조는 북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평양을 제2의 서울로 삼았다. 이를 서경(西京)으로 삼아 개경과 비슷한 시설을 갖추게 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북진정책의 기지로 삼고자 함이었다. 동북방에 대해서는 회유와 강경의 두 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였다. 태조의 명을 받고 출동한 유금필도 무력이 아닌 기지를 발휘하여 그들을 굴복시켰다. 침략을 하는 북방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했으나 귀순해 오는 자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었

다. 그 결과 그들은 고려의 각종 전투에 투입되어 후삼국 통일에 일조를 하였다. 고려의 우방이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제2의 수도로 하였다. 고려의 명장이었던 유금필을 파견하여 함경남도 지역의 여진을 평정하였다.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국으로 인정하여 그 유민들을 받아들였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는 단교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후진과 협공하여 거란을 멸하고 발해 땅을 차지하려 하였다. 그 결과 통일신라 때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 IV. 전투를 통해 본 왕건의 리더십

### 1.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연 현상을 잘 이용하라 (덕진포 전투)

실제적인 전투의 승리도 중요하다. 왕건과 견훤이 직접 격돌한 것은 909년이였다. 당시 왕건은 궁예 휘하에 있었다. 왕건은 896년 궁예가 세력을 넓혀 철원에 도읍하자 그는 아버지와 같이 궁예에게 귀순하였다. 그의 나이 당시 20세였다. 그 대가로 그는 송악에 있는 발어참성(勃禦塹城)의 성주가 되었다. 898년 궁예가 수도를 송악으로 옮기자 왕건은 정기대감(精騎大監)에 임명되었다. 기병대의 지휘관이 된 것이다. 이후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 양주·남양·청주·충주·괴산 일대를 점령하며 활약했다.

궁예의 명을 받은 왕건의 남진정책과 후백제 견훤의 북진정책은 나주 일대에서 충돌했다. 왕건은 뛰어난 해상세력의 일원이었다. 그의 고향인 개령이 해변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선대가 중국과의 무

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왕건은 나주를 점령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하였다. 해군력에서는 왕건이 한 수 위로, 909년 영암의 덕진포(德津浦)<sup>6)</sup> 전투에서 후백제 견훤의 수군을 대파하였다. 참패한 견훤은 작은 쪽배를 타고 도망쳐야 했다.

이 승리는 바람의 방향과 적의 약점을 잘 이용한 것이었다. 적의 전함이 꼬리를 맞대고 물려 있는 것을 보았고 바람이 적진을 향해 불고 있음을 알았다. 이에 왕건은 화공(火攻) 작전을 펴서 적을 궤멸시켰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강 전투를 연상케 하는 전투였다.

## 2. 햇볕 정책도 유용한 전술의 하나이다 (고창군 전투)

918년 왕건은 궁예를 내쫓고 왕위에 올랐다.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고구려의 부흥과 재건을 기치로 내걸었다.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 하늘이 자신에게 천명을 내려주어 국가를 열었다는 뜻이다. 이후 견훤과 왕건의 관계는 한동안 우호적이었다. 견훤은 좋은 부채와 지리산의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왕건에게 선물하였다. 기록에는 없지만 왕건도 이에 대한 답례를 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태조 3년(920) 견훤이 신라의 합천·초계 지역을 공격하자, 신라의 요청을 받은 왕건이 구원군을 보내게 되자 두 나라는 적대관계로 변하였다.

본격적인 대결은 태조 8년(925)의 조물군(구미의 금오산성으로 추정) 전투에서였다. 왕건 측의 장군 애선이 전사하였고, 왕건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였으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여 인질을 교

---

6) 덕진포는 현재의 전라남도 영암에 있다. 지금도 그 부근에는 덕진교(德津橋)라는 조그만 다리가 위치하고 있다.

환하고 화친을 맺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후백제의 인질이 병으로 죽자, 견훤도 왕건 측의 인질을 죽이고 고려를 공격하였고, 이후 견훤과 왕건은 대립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태조 10년(927) 공산(公山)<sup>7)</sup> 전투에서 폭발하였다. 견훤이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침범하여 경애왕을 살해하자, 왕건이 이를 구원하려 친히 출전하였다가 견훤의 군대에 포위되었다. 이때 신승겸이 왕건과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죽음으로써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고, 견훤은 909년 해전에서의 패배를 멋지게 복수하였다.

그러나 왕건은 몇 년 동안 명주(강릉)의 왕순식으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12년(929)부터 시작되어 이듬해까지 지속된 고창군(안동) 전투에서는 왕건이 크게 승리하였다. 물론 그것은 그곳의 토착세력인 김선평·권행·장길 등의 도움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110여 성이 왕건의 편이 되어 견훤 측은 큰 손실을 보았다.

이 전투의 승리는 왕건의 햇별 정책이 거둔 승리라 할 수 있다. 왕건은 왕위에 즉위한 이후 줄곧 기존의 신라를 돕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위기에 빠진 신라를 위하여 여러 차례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공산 전투에서는 신라를 돕다가 목숨을 잃을 뻔 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안동 지역의 호족들이 왕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었다. 이듬해 신라의 서울 경주를 방문하자 도성 사람들이 “지난 날 견훤이 왔을 때는 늑대나 호랑일르 만난 것 같더니 지금 왕공(王公)이 오니 부모를 뵈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이 그러한 상황을 잘 말해준다.

---

7) 지금의 대구 팔공산 지역을 가리킨다. 이 공산 전투에서 고려의 장군 8명이 죽었다 하여 공산을 팔공산이라 하였다 한다



### 3.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잘 이용하라 (일이천 전투)

이후 견훤은 수군으로 몇 차례 공격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또 후백제는 내부에서 분열했다. 견훤은 10여 명의 아들 중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다. 그러자 그 형들인 신검·양검·용검 등이 난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금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견훤은 나주로 달아나 왕건에게 귀순하였다. 곧 이어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에 귀순함으로써 왕건의 후삼국 통일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남은 것은 신검과의 마지막 결전이었다. 왕건은 반역한 자식을 죽여달라는 견훤의 청을 받아들이고 태조 19년(936), 경북 선산부근의 일이천(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신검과 일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한 신검은 황산군(충남 논산군 연산면)으로 달아났고, 왕건군은 이들을 추격하여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왕건은 연산에 개태사란 절을 창건하기도 하였다. 이로서 후삼국은 고려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

그런데 이 일이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후백제왕 견훤이었다. 후백제 정권의 내분으로 견훤이 고려에 귀순하자 왕건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오히려 그를 잘 이용하였다. 고려의 견훤을 일이천의 전장에 같이 데리고 가 후백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력을 약화시켰다. 견훤을 고려군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후백제군이 예전의 왕과 대결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후백제의 몇몇 장수들이 견훤의 발 앞에 항복해 왔다. 그리고 이들이 후백제군의 내부 동태를 보고함으로써 왕건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을 이용하여 적을 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의 결과였던 것이다.

## V. 맺음말

역사의 혼란기에 한반도에서 세력을 떨쳤던 견훤과 왕건. 두 사람의 대결은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다. 한 사람은 역사의 승자로써 후세에 영웅으로 남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패자가 되어 쓸쓸히 사라지게 되었다. 각자에게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고, 또 단점이 있었다. 견훤에게는 무력이 있었지만 덕이 부족했다. 그러나 왕건은 훌륭한 리더십으로 견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기다림의 철학을 배우라 ② 지휘권을 공명정대하게 써라 ③ 부하들의 마음을 장악하라 ④지휘 협조 체제를 잘 유지하라 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을 채택하라 ⑥ 항복한 적은 죽이지 않는다 ⑦크게, 멀리 생각하라 ⑧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연 현상을 잘 이용하라 ⑨ 햇볕 정책도 유용한 전술의 하나이다 ⑩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잘 이용하라

이렇듯 태조 왕건은 무력이 부족했지만 덕을 가지고 있었다. 후삼국을 통일하여 5백년 왕업의 기초를 닦은 고려 태조 왕건은 지도자로서의 인품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세운 나라, 고려는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여 새로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이제 경주 진골 중심의 골품제 사회가 붕괴되고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지방민들도 실력이 있으면 과거를 보아 중앙의 관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갑동.1990.「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창겸. 2003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경인문화사.
- 백제연구소 편. 2000.「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 신호철. 1993.「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 유영철. 2005.「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 하현강 1988.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 권진철. 1996."고려 태조의 중폐비사(重幣卑辭)책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12.
- 김갑동. 1994."고려태조 왕건과 후백제 신검의 전투" 「박병국교수 정년기념사학론총」.
- \_\_\_\_\_. 1999."백제 이후의 예산과 임존성" 「백제문화」 28.
- \_\_\_\_\_. 1999."백제유민의 동향과 나말려초의 공주" 「역사와 역사교육」 3·4호 합집
- \_\_\_\_\_. 2002."후백제의 멸망과 견훤" 「한국사학보」 12.
- \_\_\_\_\_. 2002."나말려초 천안부의 성립과 그 동향" 「한국사연구」 117 .
- \_\_\_\_\_. 2004."고려초기 흥성 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사학연구」 74.
- 김광수.1977."고려건국기의 패서호족과 대여진관계" 「사총」 21·22 합집.
- 김소영. 2001."고려 태조대 대거란정책의 전개와 그 성격" 「백산학보」 58.
- 김택균. 2004."궁예와 세달사" 「사학연구」 75.
- 박옥걸. 1996."발해유민의 래투(來投)"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

국학자료원.

- 박한설. 1993."고려의 건국과 호족" 「한국사」 12, 국편위.
- 백남혁. 2001."왕건의 통치사상과 국정개혁 방향-‘민’과 관련하여-" 「백산학보」 58.
- 서성호. 1999."고려태조대 대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 유영철. 1999."고창전투와 후삼국의 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 7.
- 이문현. 1996."고려태조의 농민정책" 「고려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 이정신. 2004."태조의 대거란정책과 고려건국이념의 형성"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 장상훈. 1996."고려태조의 서경정책" 「고려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 정용숙. 1992."고려초기 왕실혼인과 이성(異姓)후비" 「고려시대의 후비」, 민음사.
- 정지영. 1996."고려태조의 호족정책" 「고려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 조범환. 2000."고려태조 왕건의 대신라정책" 「고문화」 55.
- 조인성. 1990."태봉의 궁예정권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현강. 1967."고려 서경고" 「역사학보」 35·36합집.

## The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後三國) by King Taejo of Koryo dynasty, Wang Gun(王建) and his Leadership

Kim, Gap-Dong

King Taejo, Wang Gun(王建) had succeeded in bringing order out of chaos of the Later Three Kingdoms(後三國) and establishing a new unified dynasty, Koryo(高麗). Why can he gain the victory against the king of Later Baekje(後百濟), Gyun Hwon(甄萱)? What is his leadership?

These are his leadership ① He had the perseverance. In 927 Wang Gun had broken by Gyun Hwon's army at Gong San(公山). Nevertheless He didn't disappoint and trained troops for battle steadily. Therefore in 930 he gained a great victory against Gyun Hwon at An Dong(安東) ② He used the command rights justly. ③ His soldiers are obedient to his orders involuntarily. ④ He always cooperated with other's commanders. ⑤ He endeavored to gain victory without battle. ⑥ He had a high and great plan. ⑦ He took advantage of land configuration. ⑧ He made the enemy to fall into internal disarray.

With these leadership, Wang Gun unified Later Three Kingdoms. Regarding himself as the successor to Goguryeo, he pursued a policy of expansion to the north. Therefore he

extended his borders to Chongchon River(清川江). At the same time he broke the chains of the bone-rank system(骨品制) which had shackled Shilla(新羅)' s society.

*Key Words* : Wang Gun, Leadership, Gyun Hwon, Koryo, Later Baekje